

여수 장도, 호남권 문화예술 랜드마크 발돋움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285억 투입 ‘예술의 섬’ 탈바꿈

창작 스튜디오·다도해 정원 구축…市, 브랜드 제고 주력

여수시 웅천동에 위치한 장도가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하면서 호남권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우뚝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는 12일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장도근린공원을 외부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개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만조 때에는 공원 진출입이 제한된다.

장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GS칼텍스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2017년 10월 착공했다. 사업비는 285억원이며 이중 건축비 210억원은 GS칼텍스가, 토지매입비 75억원은 여수시가 부담했다. 이번 사업으로 장도 9만3천㎡ 부지에는 창작 스튜디오, 장도 전시관, 다도해 정원 등 문화예술공간이 새롭게 들어섰다.

창작 스튜디오는 예술인의 작업·휴게 공간이다. 조각동, 회화동, 문예동 등 총 4

개 건물로 이뤄져 있으며 작업실과 다목적실, 정원, 외부 작업장 등을 갖추고 있다.

장도 전시관은 교육,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다. 전시관 내부는 전시실, 카페, 교육실, 수장고 등으로 구성됐으며 외부는 야외 공연장과 잔디광장이 마련됐다.

다도해 정원은 남해 자생 나무와 야생화초 등이 심어진 구역이다. 정원에는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식재해 방문객에게 아름다움과 힐링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장도와 웅천천수공원을 잇는 보행 교량은 석축교의 역사성, 물때에 따라 다리가 드러나는 신비성 등을 고려해 원형을 최대한 유지했다. 다만, 안전

성과 접근성을 생각해 석축교의 높이와 폭을 확대·보강했다.

여수시는 장도근린공원이 예술마루와 함께 호남권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우뚝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여항과 관광의 도시 여수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민의 문화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예술작가들이 장도에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민과 예술인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2007년부터 올해까



여수 '예술의 섬' 장도근린공원이 지난 10일 일반에 개방됐다. /여수시 제공

지 1천410억원을 출연해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총 2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 사업은 2012년 개관한 예술마루고, 2단계 사업은 이번에 개장한

장도근린공원 '예술의 섬 장도'다. 오는 9월 1일까지 장도근린공원 장도 전시관에 가면 Feel Art展 작품을 무료로 만날 수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우리마을 주무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무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무관 발대식

주민 소통·신뢰도 구축 등 삶의 질 향상 도모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무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무관'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무관의 운영 취지 및 업무활동 요령, 업무절차 등 제도 안내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우리마을 주무관 제도는 마을자치회

도입 초기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생활민원 청취·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마을을 구성·구석 살피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군정혁신을 도모하고 행정과 주민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담양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부족한 인원은 마을 거주 공무원 혹은 마을 출신 공무원, 해당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선발했다.

발대식 이후에는 참여의사를 밝힌 64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주무관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역할은 배정받은 마을현황 파악, 마을자치회 지원 및 생활민원청취,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마을을 방문해 주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담양군은 앞으로 우리마을 주무관 활동결과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그에 따른 공동대응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 삶에 와 닿는 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고흥군, 수영장·해수탕 복합건물 건립 추진

총 126억 투입 3천 433㎡ 규모…“42억 예산절감 효과”

고흥군이 지역민의 부족한 생활체육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내수영장과 해수탕(바닷물을 이용한 온천)을 복합 건물로 본격 추진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휴양·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군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도양을 소록대교 인근인 구 녹동휴게소 인접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443㎡ 규모의 실내수영장(6레인)과 해수탕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영장과 해수탕을 하나의 복합 건물로 건립함에 따라 총 사업비 40여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수영장장과 해수탕을 각각 별개로 건립할 경우 수영장 건립에 83억원, 해수탕 건립에 85억원, 총 1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수영장과 해수탕을 하나의 복합건물로 건립함에 따라 총 사업비는 12

6억원이 소요돼 각각 건립할 경우보다 42억원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생활 SOC의 복합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군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부정·비판적 보도를 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민선 6기에 추진했던 해수탕 추진을 보류하고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실내수영장과 해수탕을 복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해수탕 설계비 4억500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고흥군에서는 두 개의 시설을 복합 건물로 건립함에 따라 건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이미 납품된 설계용역 건에 대한 설계변경도 불가능해 새로이 설계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토지매입비 절감, 지하층·복도 등 공용 면적의 공유로 건축 연면적 감소 효과도 있어 두 개의 건물을 따로 건립할 경우보다 사업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집행된 해수탕 설계비 4억5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두 개의 시설을 복합 건물로 건립함에 따라 42억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 7기 고흥군 인수위원회에서 해수탕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후 지난해 8월 도양을 주요 단체 대표들이 군수면담을 통해 도양읍민을 위한 해수탕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의 계속 추진을 건의했다.

더불어 이장·부녀회장·번영회 등 주민 대표성이 있는 군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해 해수탕을 계속 건립기로 결정했다고 고흥군은 설명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영장과 해수탕을 올해 9월에 착공, 2021년 8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유익한 시설로써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장소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신영희 기자

광양시, 도내 최초 치매 환자 약제비 지원

광양시가 전남 최초로 모든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한다.

광양시는 12일 “다음달부터 전남도 최초로 모든 광양시 거주 치매 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치매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정부의 치매 약

제비 지급 기준에 따라 소득 기준을 구분해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만 약제비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광양 시민 중 치매 환자로 진단받은 모든 사람은 소득에 상관없이 치매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통과해 이뤄졌으며 실질

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위해 미래를 생각하는 빠른 행보로 치매 행정에 대한 광양시의 의지로 보여진다.

치매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광양읍)를 방문해 관련서류(치매약 처방전, 약제명수증, CDR(임상치매평가) 또는 GDS(전반적인 황폐화척도), 환자신청자신분증, 약제비 받을 통장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양=허선식 기자

화순군, 3개 하수도 신규사업 본격화

화순군이 올해 하수도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정비 사업 3건의 시설계획을 완료하고 사업비(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350억원)를 확정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 중이다.

화순군은 도곡면 일원의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암면의 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동면 북암리

와 춘양면 우봉·부곡1리 일원의 북암·우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화순군은 이달 안에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발주해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애초 3개 사업은 사업비 400억원(국비 280억원·군비 120억원)이 확정돼 지난해 3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

했고 지난 3월 설계도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 규모와 사업비가 늘었다. 도곡지구는 당초 277억원에서 373억원(증액 96억원)으로, 월전지구는 69억원에서 71억원(증액 2억원)으로, 북암·우봉지구는 54억원에서 56억원(증액 2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었다.

총 10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 화순군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비(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화순=이병철 기자

오피스텔 [급 매]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 (주거.사무실가능 / 방 2개 가능) 23평
- 전체 올수리, 내부 깨끗
- 보 500만 월 50만 (노후대비)
- ▶ 시세 1억3천
- 급매 8천400만 (웅3천만)

☎ 062-382-5500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광산구 산정농협 뒤편 1분 (코너)
- 1층 (상가)
2층(원룸5개) 3층(원룸5개)
4층 - 최고급 주택 (A.P.T 35평형)
-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 매가 8억5천만 (웅2억5천, 보 1억)

062-382-5500 010-6670-9800

경매 교육

- ① 경매 기초 실전반
- ② 실전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격)
- ③ 사무실 함께 쓰실분
(전문반) 주 1회 스터디
(기초 실전반, 특별반) → 매주 개강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 1. 상무지구 7층 중 6층 (전용 60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1억4천6백
- 2. 광산구 신기동 (원룸빌딩) (토 110평, 건 171평)
▶ 감정가 8억1천7백 → 최저가 5억7천2백
- 3. 상무지구 7층 중 7층 (전용 40평)
▶ 감정가 2억4천 → 최저가 8천8백만
- 4. 북구 용봉동 (다기구원룸) (토 80평, 건 165평)
▶ 감정가 5억9천만 → 최저가 4억1천5백만
- 5. 서구 농성동 (주유소) (토 246평, 건 278평)
▶ 감정가 15억5천 → 최저가 15억5천

062-382-5500